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보와 출생	1장	
유년시절	2장	
(세례요한)세례	3장	
사역준비/시작	4장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사역

산상수훈	5장	① 가르침
(천국의 선언서)	6장	
	7장	
치유와 이적	8장	
	9장	
제자도(천국의 사명)	10장	②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	11장	
	12장	
천국의 비유들	13장	③ 가르침
갈릴리 사역 후반	14장	
종교지도자들과 대결	15장	

예수님의 수난/십자가/부활

미래에 대한 전조	16장	베드로의 고백
(전환점)수난예고 ①②	17장	변화산
천국의 삶(관계)	18장	④ 가르침
논쟁, 심판들	19장	
수난예고 ③	20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1장	예루살렘 입성
심판에 관한 비유, 논쟁들	22장	
죽은 종교에 대한 심판	23장	⑤-1 가르침
예루살렘과 역사의 종말	24장	⑤-2 가르침
	25장	
유월절, 최후의 만찬, 배신	26장	겟세마네
예수의 수난과 죽음	27장	십자가
빈 무덤, 대위임 명령	28장	부활

마태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02 네 번째 |
마태복음 14-18장 말씀

* 마 16: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 예수님의 사역과 명성, 십자가를 향한 여정은 점점 고조됩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갈릴리를 넘어 베뢰아의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들립니다(14:1).

빈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남자만 5천명이 모일 정도였습니다(14:21).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14:35).

이스라엘을 위주로 했던 사역은 이방에까지 확장될 것입니다(15:24-28).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 역시 제자들이 근심할 정도로 깊어갑니다(15:12).

장로의 전통으로 제자들을 재단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십니다. (2, 8)
그들은 ‘맹인’이며(14),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16:3, 8).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도 점점 명확해져 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여정이 고조되면서 예수님이 모든 인물의 중심이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14:12).

모세와 엘리야를 향했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17:5).

인자이신(인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성)이십니다.

(16:13-16)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되 부활하실 것입니다(16:21).

2.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15)

예수님의 정체에 명확해질수록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나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함과 인격, 그분의 사역에 찬성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16:14).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에 천국의 원리가 들어옵니다(18-20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전지全知),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전능全能)임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18:3), 작은 자들을 향한 진정한 환대와 영접(18:4), 일곱 번 씩 일흔 번 용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8:21). 결혼과 이혼, 재물과 공로, 명예(19-20장)에 대한 모든 태도가 예수님 안에 새롭게 정립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원리나 사람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운영됩니다(포도원 품꾼의 비유, 20:1-16)).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16).’
짧지만 강렬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를 고백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풍부한 물과 헬라, 로마의 문화가 어우러진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판(pan)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온 제자들이 화려한 도시를 두리번거리며 걷습니다. 거대한 신전이 자리한 도시 한 가운데를 ‘예수님’과 함께 지납니다. 그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화려함과 거대한 규모에 압도되어 자칫 예수님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무언가에 눈과 마음을 빼앗긴 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